

경제

불황에 뜨는 '가치소비'

명품이거나 실속있거나 지갑여는 곳, 따로 있다

직장인 이수현(광주시 북구·32세)씨는 화장품은 미샤나 터페이스 같은 중저가 브랜드 제품을 쓰지만 향수는 25만원짜리 샤넬의 프리미엄 제품인 'N° 5 오 프르미에르'를 쓴다.

헤어디자이너인 김정용(광주시 북구·38세)씨는 옷은 온라인몰이나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에서 사지만 취미생활로 즐기고

관매가 늘어나는 것도 '가치 소비'의 대표적 형태다.

광주신세계 애플매장에서는 마린보이 박태환이 착용해 유명해진 '닥터드레' 헤드폰이 42만90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잘 팔리고 있으며 헤드폰 전체매출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극심한 불황에 소비자

우수하다는 평가 덕분이다.

지역 백화점들도 20~30대 소비자를 공략해 유니클로, 자라 등 SPA브랜드 입점을 적극 추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8월 유니클로(1458.6㎡)와 자라(543.6㎡)를 오픈했다. 이들 브랜드들은 하루 평균 구매고객 수가 10월 들어 전달보다 40% 이상 늘면서 목표 실적을 달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주5일제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치소비의 양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자전거나 아웃도어 제품 등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는 지갑도 아깝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불경기로 소비심리는 움츠러들었지만 가격 대비 좋은 품질과 만족도가 높은 상품에는 아깝없이 지갑을 여는 가치 소비가 백화점의 매출 지표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화장품 매출 줄지만 고가 향수 매출 증가

유니클로·자라 등 SPA 의류 브랜드 인기

있는 자전거를 구입하는데는 200만원을 썼다. 김씨는 "가격이 싸든 비싸든 디자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불황에도 이씨나 김씨처럼 개인 취향에 따라 특정 품목에 집중해서 소비를 하는 '가치소비'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매년 두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던 화장품 매출이 10월에는 3%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향수 매출은 10% 증가했다.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헤드폰

들이 지갑을 꽂고 있지만 명품에 대한 인기는 사들이지 않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10월 명품장르 매출 20% 가량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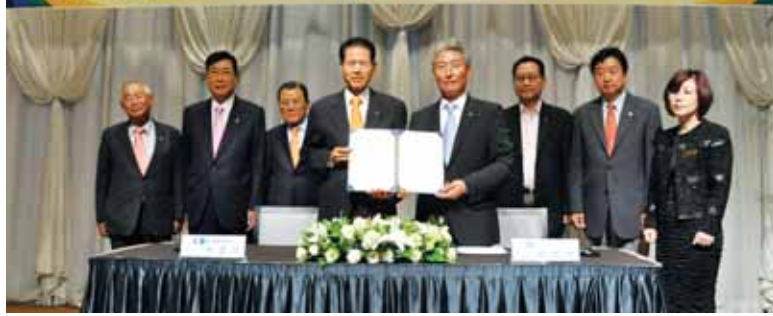
명품의 경우 고가품이므로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을 기대하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불황에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백화점측은 설명했다.

의류의 경우 불황에 보통 소비가 줄지만 패션 SPA 브랜드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20~30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경기 침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유행과 소비자의 반응에 빠르게 반영하는데 가격대비 품질 등이

▲가치소비=다른 지출을 줄여 서라도 자신이 가치를 부여한 상품에 대해 과감하게 소비하는 한편, 상품의 가격이나 용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경제사절단 조찬간담회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정형 미주 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이 17일 광주 힐리데이인호텔에서 무역진흥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상의 제공>

내년 광주서 '세계한상대회' 광주상의 성공개최 전걸음

캐나다·美상공인연합회와 잇단 업무협약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년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16~18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한 한인상공단체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한상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최후만 근근이회장과 박홍석 캐나다 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에는 광주 힐리데이인호텔에서 박홍석 회장과 이정형 미주 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이 업무협약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 간 무역 진흥과 경제 협력,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조사·연수 협력, 양 단체 회원

업체의 교류·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캐나다 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캐나다연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지난 1994년 창립해 7개 지역협회 6500여개 회원 업체가 가입돼 있다. 미주 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1981년에 설립해 45개 지부·20만여 회원이 가입된 미주지역 최대의 동포경제인단체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은 "그동안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 지역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 광주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교 평준화 이후 세대 1000대 기업 CEO 경북고, 경기고 제치고 가장 많아

고교 평준화 이후 경북고 출신이 경기고를 제치고 국내 10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렸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제일고(각 13명)가 가장 많은 CEO를 배출했다.

17일 기업분석기관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CEO 출신고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1974년 입학할 나이인 58년생 이후 출생자는 전체 CEO 964명의 26.7%인 25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북고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CEO들의 출신 고교는 경기고에 이어 경북고 61명, 서울고 48명, 경북고 32명 순이었다. 지방 고교 중 경

북고, 경남고, 부산고, 대전고, 경북사대부고·계성고·마산고·광주제일고(각 13명)가 10위 내에 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955.15 (+13.61)
코스닥지수	▼ 528.22 (-2.01)
금리 (국고채 3년)	▲ 2.81% (+0.03)
원·달러 환율	▼ 1,105.50원 (+3.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9월 광주 무역수지 올 최대 흑자

8억6300만 달러...전남은 적자폭 39% 줄여

지난달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광주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4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수출 48억4700만 달러, 수입 44억1200만 달러로 4억35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무역수지는 8억6300만 달러를 달성해 올들어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남지역은 전달 무역수지 대비 39% 적자폭을 줄인 4억28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수출호조에 힘입어 광주·전남 지역 1~9월까지 전체 누적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전년 누계대비 60% 증가)를 달성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달보다 22% 증가한 3억9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6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14%↓)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62%↑)과 미국(28%↑)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29%), 반도체(27%), 가전제품(15%), 타이어(8%) 등 철강제품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수입품목은 반도체(60%), 고무(9%), 기계류·정밀기기(6%)가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은 전달대비 12% 증가한 35억8400만 달러, 수입은 2% 증가한 4억2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무역수지(7억100만 달러 적자)대비 39% 개선된 것으로, 선박과 석유제품 등 전남지역 주요 품목의 수출호조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 수출이 증가한 반면 EU와 미국의 수출은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회원 체육행사 2000만원 모아 이웃돕기 성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7일 우수 기업고객 CEO모임인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회원사 대표 250여명을 초청해 '광주은행 창립 제44주년 기념 광운리더스클럽 은행장배 체육행사 및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소중히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회원들의 회비로 모아진 성금 2000만원은 지역 사회 불우이웃들과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광운리더스클럽은 그동안 광주은행이 선정한 사회복지시설인 KJB사랑센터에도 매년 성금을 전달하고 있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을 전파하고 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을 위한 총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민과 리더스클럽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부영 광주 첨단2택지지구 아파트 1772가구 분양

(주)부영주택이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원 첨단2택지개발지구에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1772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광주 첨단2지구 '사랑으로 부영'은 지하 1층, 지상 12~25층 20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60.46㎡(24평) 1184가구, 84.36㎡(32평) 588가구 등 총 1772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선착순 등·호지정 계약 중이며, 입주하는 내년 1월이다.

분양 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포함해 60㎡가 1억 5900만원, 84㎡는 2억1800만원이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지구 내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선대 첨단산학협력스·광주보건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교통도 편리하다. 북광주IC와 인접해 서울%순천 등으로 진출입이 쉽고, 빛고을대로 개통으로 공항 및 양산·일곡·첨단단지과 막힘없이 연결됐다.

특히, 첨단2지구는 광·디지털가

전·첨단부품소재 기업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단 배후 주거단지로서, 지역 개발에 대한 수혜지로서 가치도 높다. 분양 문의 1577-553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내개발 | 국내생산 | 특허 제 10-1171252호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국산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2012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참가전시
기간: 10. 18(목)~10. 20(토) · 장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엠비온 광주 호남지사 | 010-3645-4151, 062)942-982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박1**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